

기술이라는 '엔진'에, 맥락이라는 '지도'를 더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미래는, 가장 단단한 경험 위에 세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길을 설계하는 경제학자, 김동영입니다.

저는 조금 독특한 양극단의 지점을 연구합니다. 한쪽 빨은 자율주행과 AI가 지배할 '가장 빠른 미래'에, 다른 한쪽 빨은 한국 경제가 숨 가쁘게 달려온 '치열한 역사'에 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왜 지난 경제사(史)를 파고드나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정밀한 센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기술이 우리 삶에 안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토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과거의 경험 위에 세워질 때 가장 단단합니다. 저는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닌, 한국 경제가 술한 위기를 돌파하며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에서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습니다. 저에게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비추는 가장 확실한 '빅데이터'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전략 내비게이터'로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화려한 기술의 속도에 가려진 경제의 맥락(Context)을 읽어내고, 우리 사회가 시행착오를 줄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Meet David]에서는 경제학자로서의 이력뿐만 아니라, 방송과 강연 영상을 통해 글보다 생생한 저의 목소리와 관점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핵심인 [Focus]섹션은 저의 연구 세계관을 관통하는 세 가지

축을 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달려온 성장의 궤적(GT, Growth Trajectory)을 연료 삼아, 인공지능(AT, AI Transformation)과 모빌리티(MT, Mobility Transformation)라는 낯선 미래로 질주하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과거의 가속도(GT)를 이어받아 AI(AT)와 모빌리티(MT)로 미래를 질주한다"는 저만의 서사를 통해, 기술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통찰을 공유합니다.

더불어 [On My Desk]에서는 제가 매일 접하는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글로벌 국책 기관의 보고서 등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식을 엄선해 공유하며, [Books]에서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준 책들을 추천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곳에 차곡차곡 쌓일 기록들이 여러분의 '더 나은 선택'을 돋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